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제2절 경제산업 행정

제3절 관광문화 행정

제4절 복지여성 행정

제5절 농림 행정

제6절 해양수산 행정

제7절 건설교통 행정

제8절 녹색환경 행정

제9절 소방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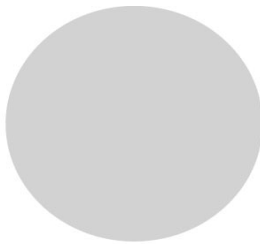
제10절 일반 행정

2012 도정백서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 총력 추진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4.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 총력 추진

1-1. 기업 2,000개 유치 총력추진 기반 강화

우리 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잘사는 전남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업 2,000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 및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2년도 한해 동안 397개 기업 4조 2천 4백여원의 투자유치와 1만 1천 4백여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1년 2월부터 도와 시군이 「기업 2,000개 유치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목표와 추진실적을 수시 점검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워크숍도 연중 2회 개최하였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공장입지를 적기 적소에 제공하기 위해 도내 개별입지 233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업투자 정보를 발굴하여 유치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유치 정보은행제를 시행하는 등 전남의 투자유치 활동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정찬균, 유치총괄팀장 윤석근, 담당자 박석현, 박재삼, 이익신, 탁혜은, 김규리, 김병훈

1-2.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지원

가. 투자유치협의회 및 투자유치전문위원회 운영

투자유치와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투자유치 협의회(위원장 행정부지사) 회의를 년 4회 개최하였다. '12. 3월에는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11년도 투자유치 유공 성과급 지급계획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5개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계획 심의 등 연도 중 기업유치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협의회를 통해 수시 심의하였으며, 투자유치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발굴제안을 위해 구성된 전남정책위원회의 투자유치전문위원회(위원장 박성수 교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다.

나.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 48명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분야별 자문관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활동적인 투자유치 자문관들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다. 투자유치보좌관 운영

경제전문가인 민간기업의 중견간부를 「투자유치보좌관」으로 위촉(금융감독원 1명, 삼성전자 1명)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전략 및 경영마인드를 공식사회에 파급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기업 투자정보 수집, 금융(PF) 지원,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정찬균, 유치총괄팀장 윤석근, 담당자 박석현, 박재삼, 이익신, 탁혜은

1-3. 투자기업 지원 및 전남 투자여건 홍보강화

가.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 합동상담회 운영

전남에 투자를 결정한 투자협약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조기 투자실현을 위해 2009. 6월 전국 최초로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투자기업 합동 상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다.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는 지역금융권인 광주은행, 농협, 기업·산업·신한은행 등과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라남도교육청 및 용역지원단체인 전남건축사협회 등 17개 기관단체 22명의 실무팀장으로 구성되어, 기업투자와 관련한 각종 금융여신, 신용보증, 우수기능인력 알선, 정책자금 안내, 건축·법무·부동산 등 각종 용역 사항을 상담 지원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49개 기업이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의 합동상담회에 참여하여 123건(금융지원 32, 신용보증 24, 정책자금 44, 인력채용 15, 기타 용역분야 8)의 고충사항을 상담 지원하였다.

나. 투자기업 고용지원협의회 운영

2011년 3월에는 도내 투자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투자기업별 인력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업 고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투자기업 고용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의 구인구직 관련기관 36개 기관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라남도, 도 교육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내 각 고용센터, 상공회의소, 이공계 대학 취업센터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각 기업별 채용계획에 대한 합동 모집 공고 및 기관별 취업알

선 등을 통해 24개 기업에 405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와 시군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2년 전국 시군구 지자체중 상위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에서 도내 2개 자치단체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우리 전남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 전국 최고의 일조량과 풍부한 해상풍력자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R&D센터(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내 7개의 연구센터, 전라남도테크노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산업용지 등 기업 투자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최적지 전남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2012년에는 국내 뉴스전문채널인 MBN과 KTX 객실광고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창원 CECO에서 개최된 ‘2012 지역발전 주간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전남의 녹색산업 여건과,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등 주요 전략산업과 F1, 순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중점 소개하였다.

‘지역발전 주간행사’는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국내외 기업인과 일반 시민이 직접 한자리에서 각 시도의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관광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투자기업 7개 기업이 전남의 홍보관을 직접 찾아와 밀도 있는 투자 상담을 하는 진행하는 등 전남의 투자매력과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정찬균, 유치총괄팀장 윤석근, 담당자 박석현, 박재삼, 이익신, 탁혜은, 김규리, 김병훈

2. 국내 · 외 기업 투자유치

2-1. 전략적인 투자유치 추진

전남의 여건과 맞는 산업분야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부품소재산업, 저탄소녹색산업, 친환경 농수축산업과 연계한 바이오식품산업, 레저서비스 산업 등을 전남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연수원 CEO과정 대상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호남향우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도권 산업단지내 잠재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산업현장에 초청하는 등 SOC확충 및 지역의 비교 우위자원과 관련한 투자의 최적지로서의 강점을 적극 부각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민선 3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발굴한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투자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별 사후관리 전담자(PM)를 지정하여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행정지원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도 270개 기업에 약 7조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국내기업은 소규모 투자설명회 및 개별IR 등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259개 기업과 약 5조 3천억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외투자설명회 및 국내 초청 현장설명회로 11개 기업과 약 1조 7천억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가. 친환경 농수산물산업 기업 유치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의 중심지로서 친환경 농수축산

물 가공유통업체, 기능성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주)청정해초원 등 70개 기업과 3,53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 전자 및 기계부품산업 기업 유치

전기전자, 기계부품 관련분야에서 (주)엠티에스 기업 등 54개 기업 4,155억원의 투자협약 성과를 거두었다.

다. 석유화학 및 신소재산업 기업 유치

또한 정밀화학 및 신소재분야에서 (주)엔엘피 등 13개 기업과 3,606억원의 투자협약을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라. 환경, 신재생에너지, 의약산업 등 관련기업 유치

그밖에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9개 기업 1조 476억원, 철강금속 분야에 19개 기업 3,990억원, 의약분야 4개 기업 12억원 등 저탄소 녹색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정찬균, 유치총괄팀장 윤석근, 제조업유치팀장 윤영주,
레저산업팀장 주상욱, 담당자 박석현, 김종현, 강경문

2-2.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가. 식품 및 신소재 산업 분야 투자유치

우리 도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스비시화학 등 3개국 5개 기업 2억불 외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신소재산업에서는 고도기술산업인 탄산소재 침상 코크스 제조업체인 미스비시화학, 포스

코 캠텍과 72백만불에 이르는 투자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LED용 고광도 전자소재를 생산하는 미국 알버말社, 젓꼭지 등 유아 안전용기를 생산하는 독일 바스프社와 투자협약(1억2천만불)을 체결하였다.

또한, 일본 식품산업 외자유치를 위해 현지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하여 잠재투자기업 등을 발굴하고, 일본 식품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도쿄타이가, 키파워 등과 투자협약(10백만불)을 체결하였다.

나. 일본 실무 IR 활동

2012. 2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일본 식품, 부품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12~2. 15일(1차) 까지 도쿄소재 니폰소다, 미스비시상사 등 잠재투자기업을 방문하였으며, 5. 28~6. 5일(2차)까지 식품기업, 정밀화학 등 잠재투자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진출에 관심을 갖는 15개 기업을 발굴하고 이중 오리엔탈기연공업 등 9개 잠재투자기업을 초청하여 도내 산업단지 등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다. 대만 실무 IR 활동

2012. 2월부터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대만 공업총회 회원사 및 대만 행정원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8~2. 10일 까지 대만 행정원과 연계해 대만 대기업인 원웅그룹 등을 4개 잠재투자기업을 방문하였으며, 5. 21~2. 23까지 공업총회 회원사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라. 중국 실무 IR 활동

중국내 기업여건 변화로 제3국을 검토하는 국내 진출기업에 대한 투

자유치를 위해 2012. 9. 3~9. 7일 까지 중국 상해사무소와 우리 도 기업유치과 외자팀이 방면별 투자유치 국내진출기업, 관련기관 등을 방문 T/F를 구성하여 상해, 천진, 산둥, 광둥성 등 국내 진출기업이 다수 소재하는 지역을 방문 U턴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T/F팀은 국내 진출기업 20개 사, 코트라 중국무역관 3개소 등을 방문하여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현황, 국내부지에 따른 투자유치방안 등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마.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도내에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도내에 투자하고 있는 50만불이상 7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과에서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언하거나 관련 부서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방문(61개소) 및 간담회(15회)를 실시하여 10여개 업체에서 10개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처리하였다.

바.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K(KOTRA)의 On-Line을 활용, 우리 도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제공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온라인망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정보 수집과 통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상해와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 유럽 프랑크푸르트에 “전라남도 해외 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해외 투자유치 및 통상 교류활동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투자정보 입수 및 교환을 통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유치과 과 장 정찬균, 외자유치팀장 안기홍, 담당자 노일환, 나영수, 박주환, 임은화

2-3.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가. 5GW 풍력프로젝트 사업 추진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청정에너지원 확보가 미래국가경쟁력의 중심이 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서남해안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토대로 대규모(5GW) 내수시장 창출과 풍력기업유치를 연계한 풍력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게 되었다. 전남 서남부 도서·해안·해상지역에 5GW 발전단지와 설비전용산단이 2023년까지 조성될 경우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고용창출 25천명, 연간지방세수 641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2013. 6월 현재, 포스코에너지 등 4개 기업을 1차 사업자로 확정하고, 도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1. 8월 도내 풍력발전 희망기업과 전라남도 및 영광, 신안 등 5개 군과 함께 민관합동 ‘전남 5GW 풍력발전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풍력터빈 및 부품기업 유치, 육·해상풍력 타당성조사, 각종 민원, 인허가 지원 등 프로젝트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2. 2월, 도시군 풍력발전사업 추진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난개발 방지와 산업육성을 위한 풍력발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남해안 해상풍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사업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5GW풍력프로젝트는 2013년 육상시범사업(200MW)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1단계 100MW 규모의 단지를 건설하고,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투자개발과 과장 김범수, 5GW풍력산업유치팀장 박재완, 담당자 배용석, 이복남

나.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구체화 실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시행(2008. 9월)됨에 따라 2008. 12월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마치고, 목포·무안·신안 및 영암·해남·진도 일부지역 등 6개 시군에 1,216 km², 29개지구를 대상으로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 지정고시가 되었다.

구체적 사업실현을 위하여 2009년부터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면적 축소(781.98km²)와 지구수 조정(14지구) 등 중앙부처(환경부, 국토부) 협의결과 및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 재편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변경고시를 2012. 5월 실시하였다.

변경 고시된 지구중 민간부문의 개발참여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2012. 7월 신안 울도 식물테마파크, 굴도 해양펜션단지, 도덕도 해양리조트 등 3지구에 대해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하였으나 협의결과 사업계획 변경 및 개발 컨셉 재조정 등을 사유로 보완 후 재심의토록 결정되었다.

심의보류된 3개지구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보완을 실시한 후 재상정을 추진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투자개발과 과장 김범수, 중남부권팀장 소상원, 담당자 정동철, 박대형, 심정식

다. 관광개발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

전남의 풍부한 섬·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리조트, 복합휴양타운 등 관광개발 민자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1,620백만원을 투입하여 투자후보지 10개소에 대한 컨셉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수립 등 관광개발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 해항그룹, 이랜드 그룹, 대명그룹 등 국내·외 유명 타겟 기업을 초청하여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2회 개최(상·하반기)하였으며, 투자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을 발굴·유치하기 위하여

중국 해항그룹(하이난항공 모기업), 중국 CITS그룹(중국국제여행공사), 말레이시아 사판그룹(SAFUAN) 초청 투자상담 등 해외 투자유치 IR활동을 전개하였다.



투자개발과 과장 김범수, 북부권팀장 이행권, 담당자 나재영, 이형찬, 최근영

라. 전남조선타운 조성사업

신안군 압해면과 고흥군 도양읍 일원에 총 면적 1,611만㎡, 투자비 2조 5,271억원 규모의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7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2009년에는 일반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

인 등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 하였다. 그러나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산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조선타운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신안조선타운은 신규사업자 발굴, 개발규모 축소조정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개발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고흥조선타운은 2012년 7월 24일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사 및 금융사와 투자협약을 체결, 개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보상과 산업단지 개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투자개발과 과장 김범수, 조선해양산업유치팀장 박재환, 담당자 윤성식, 박성우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3-1.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여건 조성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배경

낙후된 우리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2003년부터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를 구상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 개발예정지인 영암호 및 금호호 일대는 서해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친수공간 지역이면서 연평균 15℃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주변에 산재한 2천여 개의 다양한 섬들, 6천4백여 km의 리아스식 해안선 등 아름다운 자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와의 최 근거리로 교역 및 관광 등에 유리한 경제적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관광레저 허브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목포시 면적 정도 크기의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 약 49km²(1,482만평)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2005년 8월 25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고 2006년부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개발 예정지내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예정지는 구성지구의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전체면적이 48.1km²로 조정되었으며, 이중 간척지가 41.6km²로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척지 양도·양수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사업부지의 확보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간척지 양도·양수의 추진과 함께 우선적으로 부동산구를 제외한 삼호지구 8.44㎢, 구성지구 15.85㎢, 삼포지구 4.20㎢ 등 총 28.49㎢의 간척지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업도시개발부지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에따라 삼호지구는 2009년 10월에, 구성지구 2010년 1월, 삼포지구는 2010년 10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되었고, 2010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삼호·구성·삼포지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권리(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이 공유수면 매립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구별 시행사간에 각각 체결되었다.

구성지구는 2010년 9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2011년에 ‘감정평가협회의 타당성 검증’, ‘감사원 감사요청’, ‘법원 민사조정’을 청구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하여 2011년 12월 15일 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통해 민사조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관련기관이 합의를 하였다. 같은 해 12월 26일 민사조정 최종 심리에서 ‘2010년 12월 당초 평가한 금액대로 양도·양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간척지 감정가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이에따라 2012년 1월 6일자로 102억원의 간척지 양도·양수 계약금을 납입하고 잔대금 금융조달을 위해 NH농협증권·시행사·전남개발공사의 참여로 PF(Project Financing)를 7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권리(간척지)의 담보능력’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PF는 실패하였다. 이에따라 시행사와 농어촌공사는 우선적으로 잔대금을 현금예치한 후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11월 21일 양도·양수 협약 변경 및 잔대금을 현금예치 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권리의 양도·양수를 완료하였다.

삼호지구는 2010년 12월 감정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평가조건 및 방법의 차이와 평가기관의 납품서 제출 지연 등의 이유로 2011년 7월 평가가 중단된 이후 감정평가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도는 감정평가 추진중 대립되는 평가기준과 관련한 문제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국토해양부와 법 개정 여부를 협의하여 2012년 8월에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국회 국토해양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의원발의 법개정을 건의하고 협조요청 하였으며, 2012년 12월 말까지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대표발의로 “법개정안”이 준비되었다.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김형찬

다. 삼포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삼포지구는 전체면적 4.29km² 중 간척지가 4.20km²로 전체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척지 양도양수의 원활한 추진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삼포지구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포지구의 경우에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1단계로 F1경주장 부지 1.87km²에 대하여 2010년 8월 감정평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7월 22일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10월 총 287억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간척지를 인수하였다.

이후, 2단계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협약체결 협의를 개시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시행사의 국내 참여기업 발굴을 통한 내부 지분구조의 변경과 실질적인 2단계 개발사업자의 불확실로 인해 협의회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삼포지구 2단계 간척지 부지 2.33km²에 대하여는 기업도시특

별법 개정 추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입하고 일반 토지 0.09km² 경우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매입할 예정이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개발지원담당 노상철, 담당자 이광규, 박성훈

3-2.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실시계획 승인 추진

가.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 추진

2006년 6월 1일 보성건설(주) 30억원, 송촌종합건설(주), 금강기업(주), 남해종합건설(주) 각 10억원씩 출자함으로써 자본금 60억원으로 구성지구 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8년 4월 3일 전남개발공사가 12억원의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였고, 2009년 3월 20일에는 기존 송촌종합건설(주) 10억원을 (주)한양이 인수하였고, 같은 해 10월 30일 금강기업(주) 지분 10억원을 보성건설(주)가 인수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1일에 보성건설(주)가 510억원, (주)한양이 219억원, 우리 도 90억원, 광주은행 9억원 등 총 828억원을 증자하였다. 같은 해 12월 31일에 (주)한양 지분 78억원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보성건설(주) 지분 11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각각 인수함으로써 총 자본금 900억원에 대한 출자가 마무리 되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성지구 개발방향은 Joyful City(다양한 레저활동과 흥미롭고 신나는 여가 체험으로 잊지 못 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도시)로 테마파크, 해양스포츠단지, 남도 음식문화촌, 골프빌리지, 비즈니스센터, 시네마타운, 메디컬센터 등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개발내용을 담고 있는 구성지구 개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13일 승인되었고,

2010년 10월 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1개월이 지난 2011년 11월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중앙 15개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후 구성지구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척지에 대한 양도·양수 감정평가액이 민사조정을 통하여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계기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삼호지구 실시계획 승인 추진

2006년 9월 17일 금호산업(주) 9억원, 대림산업(주) 3억원, 삼환기업(주) 2억원 등을 출자하여 14억원의 자본금으로 삼호지구 SPC인 서남해안레저(주)가 설립되었다.

서남해안레저(주) 대주주는 2009년 7월 1일 당초 금호산업(주)에서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로 변경되면서 자본금 28억원을 증자하였고, 같은 해 8월 12일 한국관광공사 90억원, 우리도 75억원, 삼환기업(주) 2억원,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가 241억원을 추가 증자함으로써 총 450억원 자본금 출자를 마무리하였다.

삼호지구 개발방향은 Wealthy City(아시아의 베네치아를 꿈꾸는 수려한 수변공간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의 고품격 풍요 도시)로 허브테마단지, 마리나, 리조트단지, 골프마을 등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호지구 개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8일 승인되었고, 2010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년 5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중앙 15개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감정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및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최종 승인을 받아 구성지구와 함께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에 차질없이 준비토록 할 계획이다.

다. 부동산구 실시계획 승인 추진

부동산구 SPC인 썬카운티(주)는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 30억원, 아로(주) 20억원 등 50억원의 출자금으로 2007년 4월 30일 설립되었다.

2007년 12월 30일,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 15억원, 아로(주) 10억원, 우리 도가 30억원, 농협중앙회 22억5천만원, 하나은행 15억원, 하나대투증권 7억5천만원 등 1차 출자금 150억원을 납입하였고, 2010년 2월 27일 우리 도가 2차 출자예정금액 80억원을 추가 납입함으로써 총 230억원이 출자된 상태지만, 총 납입자본금 550억원중에 320억원이 아직 출자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도를 제외한 5개 출자사들이 나머지 자본금 출자시기를 부동산구 개발계획 승인 이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구 개발방향은 Vital City(청정 자연환경 속의 휴식으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회복과 활력을 주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워터파크, 마리나클럽, 식물원, 골프아카데미, 재활의료센터, 연수원 등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개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구 개발계획은 2009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14개 중앙부처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농림수산물식품부가 협의하지 않으면서 골프장 과잉공급 및 간척지 가격 등을 문제 삼아 개발계획을 재검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청와대 조정회의 등을 개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발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실시(2011년 4월~12월)하였으나, 사업 시행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인 편익/비용만을 실시하여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B/C 1.0이하) 발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차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 및 총리실 또는 BH 주재 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한 재무성 분석 실시 또는 경제성 분석과 함께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2012년 4월 10일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행정소송은 제3차 변론까지 진행 되었고 행정심판은 2013년 상반기에 심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구개발 문제가 장기화 될 전망이 높아졌다.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개발계획담당 류택열, 담당자 김영찬, 박우주

라. 삼포지구 실시계획 승인 추진

삼포지구 SPC인 KAVO(주)는 MBH가 자본금 75억원을 출자하여 2006년 9월 13일 설립되었다. 이후 2007년 6월 22일 MBH가 27억원을, 2008년 2월 2일 전남개발공사가 40억원을 우선 납입하였고 2008년 7월 26일 우리 도에서 173억원, SK건설(주) 148억원, 전남개발공사 90억원, 신한은행 40억원, 농협중앙회 40억원, 광주은행 7억원을 납입함으로써 총 6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였다. 2010년 10월 25일 MBH 지분 102억원을 SK건설(주)가 인수한 이후 2012년 5월 18일 SK건설(주) 지분 250억원 중 37억원을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함으로써 자본금 지분구조가 일단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인 「F1 Korean Grand Prix」가 열리는 삼포지구 개발방향은 Dynamic City(젊음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도시)로 F1경주장, 카트장, 모터산업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등을 조성 및 유치할 예정으로 있다.

삼포지구 개발의 첫걸음은 F1경주장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2007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암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득하여 경주장 건설의 근거법을 마련하면서 부터다. 2009년에는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였다.

협의과정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관련 최소면적 기준(660만㎡)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서법령해석 심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및 법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여 2009년 9월 29일 동법시행령 부칙에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기준의 100분의 50을 개발구역 면적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2009년 3월 4일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관련규정상 개발구역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웠으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0년 4월 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2010년 10월 4일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2010년 10월 21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F1 경주장을 선

도 사업으로 하는 삼포지구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2011년말 전남개발공사 내에 KIC(Korea International Circuit) 사업단을 별도 기구로 발족하여 F1 경주장 관리 운영과 삼포지구 잔여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등 기업도시 조성 및 개발사업을 기업도시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하였다.

삼포지구는 F1경주장이 조성된 1단계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용역(용역기간 : 2012년 9월~2013년 10월)을 시행하여 2014년 상반기 중에 중앙 관계부처의 승인을 득해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개발지원담당 노상철 담당자 이광규, 박성훈

3-3.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기반 조성

가.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 차단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전남도에서 2004년 8월 11일 1차로 해남군 산이면 전 지역과 화원면 청룡·금평·영호·성산리 지역 105.86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예정 인근 지역인 해남군 해남읍, 화산·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면 일원 457.65km²와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면 189.1km²까지 2차로 확대 지정하여 총 면적 708.77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거의 없고, 지가 또한 안정적으로 조사되어 우리 도에서는 10회에 걸쳐 해제를 건의한 결과 2009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

에서 지정한 영암, 해남군 일원 646.75km²를 해제하였으며, 같은 해 5월 4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중 개발 예정지 및 주변을 제외한 해남군 11개 법정리 62.02km²를 해제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부동리,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금호리 6개 법정리에 걸쳐 지정되었던 43.84km²에 대해서도 2011년 8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 하였다.

또한 기업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남군과 영암군에서는 1차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기업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으나, 개발계획 미승인 등으로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을 2차에 걸쳐 연장 고시하여 월 1회 이상 도, 해남군, 영암군, 시행사가 합동으로 위법행위 등을 점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해 주택 및 축사 등의 수선행위와 소형관정 개발 등을 통한 영농경작행위 등은 해당 군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8일 삼호지구 개발계획 승인, 2010년 1월 13일 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 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였으나 기업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년에도 도, 해남군 및 시행사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보상지원담당 임광건, 담당자 조병섭, 서희정

나. 사유지 보상 및 주민 생계안정 대책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내 토지소유 및 이주민 현황을 보면 토지는 3,513필지, 면적 48,093천m²로 이중 국공유지 1.03%, 간척지 86.58%,

사유지 12.39%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주민 현황은 세대수 164 세대에 인구수 376명이다. 이중 구성지구 사유지는 2,690필지, 4,656 천㎡로 이주민은 143세대, 334명이다. 그리고 2012년 12월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으로 2013년에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유지 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양보하고, 이주 또는 이직을 하여야 하는 영암·해남지역의 주민생계안정을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지역 주민과의 보상관련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친환경적이며 실현 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전남발전연구원과 2011년 11월 18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민생계안정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가경작 주민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등 현황조사 분석, 용역관련 지역여론 주도층 의견청취 및 여론조사(취업희망 등), 기업도시 개발과정 및 준공 후 주민생계 수요조사, 지역주민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수요조사, 이주대상자 주거 수요조사, 개발이익분에 대한 지역민의 지역사회 환원 의견수렴 등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수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이주자 택지 위치·조성규모 등 이주민 이주대책과 간척지 가경작민 등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생활대책 수립 시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주민의견, 국내 유사사례, 학술 연구 등을 반영한 연구용역 결과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행사에 적극 요구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원활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보상지원담당 임광건, 담당자 조병섭, 서희정

다. 국지도 49호선 확장

기업도시 건설에 따라 향후 잠재 교통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국

지도 49호선에 대하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도로 높이를 2m로 높이고, 입체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지난 2010년 4월 국토해양부에 1,842억원에서 488억원이 증가된 2,330억원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6차선이 필요하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오에 따라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하여금 사업타당성 조사를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B/C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추후 기업도시 활성화와 교통량 추이를 봐 가면서 도로 확장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라.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 추진

정주민 48천명(19천세대)과 연간 500만 여명의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추가 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기 개설된 F1진입도로를 기업도시 진입도로로 간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누락하여왔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한 결과 2011년 11월 8일 국회 상임위(문광위)에서 기본조사 용역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되었었다. 우리 도는 동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일념으로 2012년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서를 2011년 11월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12년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KDI에 의뢰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B/C 1.0 이상의 최종 결과가 나오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측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동측진입도로는 목포·광양간고속도로 및 국도 2호선 서호 IC에서부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지구내 지방도 806호선을 잇는 구간까지로, 총 길이는 10.9km, 4차로이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756억원(국비 50%, 지방비 등 50%)이 소요될 예정이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개발계획담당 류택열, 담당자 김영찬

3-4. 기업도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추진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브랜드 개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시장성 확보 및 증장기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브랜드 네이밍으로 「솔라시도」를 개발·확정하였고, 관련부서 및 SPC 의견수렴과 브랜드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2012년 3월 13일 기본디자인과 슬로건으로 태양·바다·호수의 삼중주, 월드클래스 휴양·레저도시로 결정하였다.

기업도시 브랜드 솔라시도(SolaSeaDo)는 태양(Solar)과 바다(Sea)의 영어식 발음을 한글화 하면서 전세계 공통어로 통하는 음계의 높은음자리 “솔라시도”와 조화시킨 것으로 리듬과 에너지, 젊음의 경쾌한 템포를 연상시키는 휴식이 있는 해양레저도시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기본디자인 이미지는 풍부한 일조량과 활기찬 해안 풍경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프리스타일로 서남해안의 다도해에 인접한 레저도시의 속성과 더불어 자유롭고 낭만적인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아울러, 「솔라시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해 2012년 6월 26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도시개발 브랜딩 사례 연구(싱가포르 센토사섬,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 이탈리아 베네치아, 호주 골든코스트 등)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솔라시도」 브랜딩 사업의 중장기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고, 기업도시 브랜드를 반영한 홍보 동영상을 개편 제작하여 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홍보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이 삼포지구의 F1경주장 건설을 제외하고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블 TV 영상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대국민 광고사업을 실시하였다.

광고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YTN 및 MBN을 통한 영상광고와 인터넷뉴스 제공 사이트인 '뉴시스'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KTX 객실 모니터를 통한 영상광고, 서울 광화문 옥외전광판 동영상 광고,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중 여수공항 대합실 와이드 광고를 실시하면서 총사업비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대규모 행사장 이벤트 홍보를 위해서 국내행사로 4월에 도민 체육대회(구례)와 10월에 명량대첩 축제(해남),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발전 주간행사(창원 컨벤션센터)의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제행사로 11월 홍콩 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 운영을 통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장 임채영,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이건재

다. 영상체험홍보관 건립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사업의 이해증진 및 투자유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상체험홍보관 건립사업은 2010년 3월 17일 전라남도과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레저(주), 썬카운티(주)가 공동출자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립 규모로는 부지 6,600㎡, 건축연면적 2,000㎡(2층)이며 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전라남도에서 20억(설계비 5억원 포함), 개발 전담법인이 45억을 분담키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홍보관 건립부지가 공유수면인 관계로 우선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2010년 3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우선 사용승낙을 신청하였으나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매각 및 우선 사용승낙에 부정적이어서 우리 도에서는 공유수면 양도양수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선 2010년 9월에 건축 및 전시시설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결과 (주)광주공간건축과 시공테크(주) 컨소시엄이 설계업체로 선정된 후 2011년 1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납품하였다.

홍보관 분담금은 2011년 3월 4일 구성지구에서 31억 6천8백만원을 납입하였고 우리 도는 2012년 2월 분담금 15억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서남해안레저(주)와 썬카운티(주)가 분담해야할 13억 32백만원은 삼호지구 실시계획 승인 등 일정 성과가 나오면 납부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간척지 양도양수 및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홍보관 착공이 어려웠으나 2012년 12월 27일 구성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간척지에 대한 임시지번을 부여받아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3년에는 홍보관을 착공하여 201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보상지원담당 임광건, 담당자 조병섭, 서희정

3-5.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모터스포츠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레저행태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것이며, 특히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F1 경주대회를 통해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의 성능 향상 및 이미지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도를 미래 신 성장산업인 모터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 부품의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F1서킷 인근 66,000㎡ 부지에 F1서킷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에 고성능·고효율화 및 신소재 등을 적용하고 중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리미엄급 고급 브랜드부품에 대한 연구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7년 12월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 9월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 결과 국내 튜닝산업에 대한 법적규제와 음성화,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행의 불확실성 및 R&D과제와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사유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 9일 F1지원법 제정과 같은 해 12월 15일 호남 광역권 전략산업에 동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문가의 기획연구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재 기획하고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11년 10월 28일 선정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대 분야 5개 R&D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센터는 국제 공인 F1 서킷과 연계하여 자동차부품의 극한 성능 시험/평가 시설로 활용,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해외 시험 비용을 절약하고 국내 시험/평가 기술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시장(프리미엄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시장) 개척을 위해 품질 인증을 위한 시험 평가 기반 시설로서 프리미엄 부품산업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既 구축된 F1 서킷을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의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고, 고품질/고성능 자동차부품의 Test-bed로 활용하여 프리미엄 부품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며, 전량 해외에서 수행되는 국제 자동차부품업체 개발 프리미엄 부품의 시험평가를 국내의 서킷에서 진행하여 비용 부담과 시간을 절약하는 국가 기술력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부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기업유치 등 국부를 증대시키는 과정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김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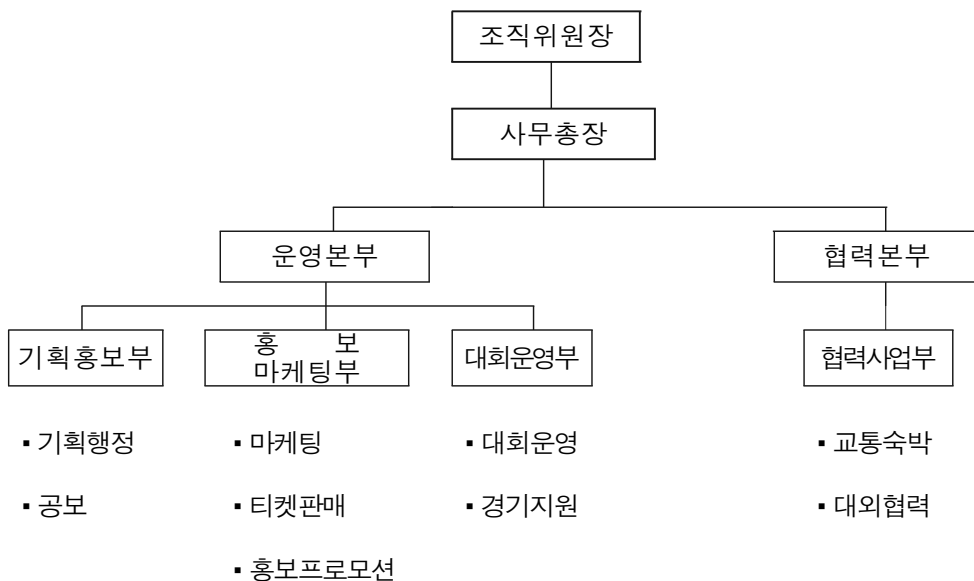
4.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4-1. F1 대회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가. 조직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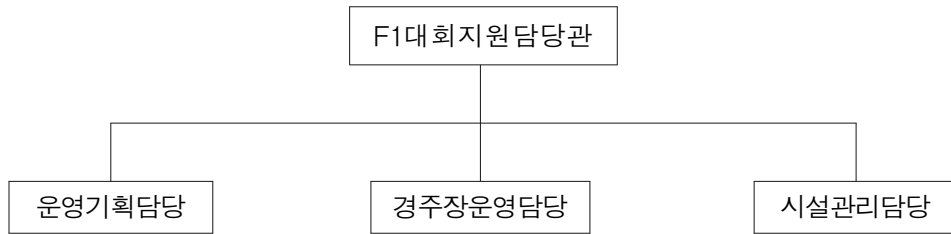
(1) F1조직위원회 사무처 개편

2011년 대회의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 조직을 현행 1사무총장 1국제협력관 3본부 1단 78부 16팀 60명에서 1사무총장 2본부 4부 10팀 39명으로 대폭 축소하여 F1대회 마케팅,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교통/숙박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D-100일을 기점으로 도분청 공무원 20명 내외를 기동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2) 전남도 지원체계 개편

“F1사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조직으로 F1대회지원담당관실 3팀 11명을 신설하여 F1 사업 구조조정, 경주장 운영 및 관리, 경주장 시설확충 등 지방채를 통한 경주장 인수업무에 따른 신설업무를 추진토록 하였고 조직위와 업무일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본부장이 실질적으로 F1대회지원담당관실 업무를 대내적으로 총괄토록 하였다.



F1대회지원담당관 강효석, 운영기획담당 고병수, 담당자 임만규

나. 재원조달

(1) 총사업비 : 4,627억원(2007~2012년)

(단위:억원)

재원	총계	F1경주장 건설	KAVO 출자	개최권	TV중계권	운영비	기반 시설
총계	6,935	4,285	173	980	295	554	648
국비	950	728	-	-	-	50	172
도비	5,457	3,557	173	599	148	504	476
민자	528			381	147	-	

2006년 한국 F1대회 유치에 확정된 이후 2012년까지 대회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약 6,935억원이며, 공공성이 강한 F1경주장 건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SOC 분야에 국비, 도비가 중점 투입

되었다. 한편 2012년부터 프로모터 계약이 변경되면서 조직위원회는 개최권료만을 납부하고 TV중계권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2) 대회운영비 확보

1) 국비

당초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F1대회운영비 예산이 누락 되었으나 2012년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에서 F1 대회운영비 50억원을 처음으로 확보하였으며, 예결위를 거쳐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대회운영비 50억원 지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 도비

2012년 F1대회와 관련하여 직접 투입된 도비는 대회운영비 130억원, 개최권료 300억원 등 총 430억원이며, 향후 국비확보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도비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진
부서

F1대회지원담당관 강효석, 운영기획담당 고병수 담당자 임만규

4-2. 영암 F1경주장(KIC) 시설 관리

가. 공공체육시설 관리

(1) F1 경주장 시설현황

대지위치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면적	1,853,321 m ²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건축면적	79,349.26 m ² (연면적 72,107.13 m ²)		
건물 (66동)	F1 블록 (21동)	그랜드스탠드	23,698 m ²
		PIT동	14,603 m ²
	상설 블록 (4동)	레이스컨트롤동	2,522 m ²
미디어센터동		3,566 m ²	
팀빌딩(14동)		9,059 m ²	
엔트런스빌딩		780 m ²	
기타 (41동)	보도육교	724 m ²	
	창고	200 m ²	
	PIT동	6,541 m ²	
	레이스컨트롤동	1,990 m ²	
주차대수	메디컬센터동	492 m ²	
	경주지원동	855 m ²	
	일반관람석(25동)	4,781 m ²	
	오수중계펌프장(2동)	386 m ²	
	야외화장실(13동)	1,604 m ²	
	카트경기장(1동)	306 m ²	
주차대수	9,320대 (법적 주차대수 : 1,193대)		

〈 KIC 서킷 제원 〉

구분	시 설 명	시 설 현 황
F1 트랙	서 킷	L=5.615km, B=13~15m
	스 탠 드	전체 118,351석 -메인그랜드스탠드 16,116석
상설 트랙	서 킷	L=3.045km, B=13~15m
	스 탠 드	일반관람석 84,602석
기타	카 트 장	L=1.222km, B=8~12m
	오토캠핑장	캐러밴 6대, 캐러밴사이트 4면, 텐트사이트 40면, 샤워장 2개소, 취사장 1개소, 놀이터 등

(2) F1 경주장 시설관리 추진개요

영암 F1경주장은 2011년말까지 F1대회운영기업인 (주)KAVO의 소유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관련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암 F1경주장은 2010년 관련 건축물과 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별 사용 승인을 득하고, 서킷은 국제기구인 FIA로부터 최상급 등급인 Grade 1을 받아 2010 F1대회를 개최하였으나, F1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준공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2011년 9월 28일 준공, 동년 10월 5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였다.

2011년말 우리도는 F1경주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F1경주장 인수를 결정하고 '11.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1. 12. 15일 경주장 인수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업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되었으며, '12. 2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

규칙이 정비됨에 따라 경주장 시설을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경주장 주차장을 활용한 렌터카 차고지 및 약13MW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구내식당·자동판매기 운영 임대,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사무실 임대 등으로 연간 115백만원의 공유재산사용료 수입이 발생되었다.

나. F1 대회 시설 지원

(1)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

F1경주장을 찾는 관람객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원활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주장내 우회도로 개설 및 벤딩에어리어 구간을 정비하고, 2012 코리아그랑프리 대회 개최를 위한 FIA요구사항중 서킷 안전시설물 보강, 유류보관창고 신축, 팀빌딩 진입로 개선사업을 10월 대회 이전에 시행하였으며, 소요사업비 859백만원은 '12년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사용하였다.

〈 F1대회 관련 시설사업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859
P3우회도로 및 벤딩에어리어 포장	우회도로 1.1km 개설 벤딩에어리어 7m×420m 인도 포장 4m×313m 폐기물처리 1식	541
F1경주장 관람 안전시설물 및 서킷보강	안전웬스 보강 452m 서킷 내부 포장 1,348㎡	181
유류창고 신축 및 팀빌딩 진입로 등 보수	유류창고 신축 200㎡ 팀빌딩 진입로 및 헬기장 보강	101
실시 설계용역	3건	36

(2)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11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573백만원과 자체사업비 273백만원으로는 국내 모터스포츠대회는 대부분 상설서킷을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12년 3월 상설블록 내에 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관람객들이 보다 근거리에서 대회를 관람하고 스피드를 느낄 수 있도록 상설 패독빌딩 2층에 250석 규모의 간이관람석을 설치하는 등 경주장 관람객과 증가추세인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상반기에 시행하였다.

〈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관련 사업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846
상설패독 구내식당 설치	상설패독 2층 식당설치 75평	30
상설패독 관람석 설치	상설패독 2층, 250석	30
전남 관광지 홍보	관광안내도, 관광홍보 사진, X배너 등	7
농특산품 판매코너 설치	특산품 판매대 설치	2
비점오염원 설치	저류조 2개소 설치	17
방송지원시설 설치	케이블 설치, 단자함 12개소	487
경주장 시설물 보수	진입로,마리나구간 석축쌓기 130m 용수 관로부설 2.5km 음수대 4개소	273

다. KIC 기반시설 확충

(1) 카트경기장 설치

F1경주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던 KAVO에서 부가세환급금 16억원을 들여 주차장내 유희부지 51천㎡에 카트경기장을 설치하고, 카트 30대 및 각종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우리도에 무상기부하였으며, 우리도에서

는 '12년 하반기 자체사업비 412백만원으로 전기, 조명, 계측시스템, 어린이 교통체험시설 등을 보장하였다.

카트경기장 설치 운영으로 F1경주장 운영 활성화는 물론 모터스포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대한민국 최초 F1드라이버를 양성하는 등 모터스포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2) 오토캠핑장 조성

2013년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원자력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상설 관람석 주변 도시숲 조성지역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텐트사이트 40면과 캠핑카 사이트4면, 고정식 캐러밴 6대, 공동샤워장 3동, 공동취사장 1동,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으며, 카트장 등과 연계한 가족단위 복합레저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증가추세인 오토캠핑 수요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경주장 이용객의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추진
부서

F1대회지원담당관 강효석, 시설관리담당 김희철, 담당자 최환, 박창민

4-3. 2012 F1대회 개최성과

가.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요

(1)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요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었으며, 3년 연속 16만여명의 관람객 유치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F1대회는 2012년 대회의 제 16라운드로서 12개팀

24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하여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렀으며, 대회결과 1위는 세바스찬 베텔(레드불, 독일), 2위는 마크웨버(레드불, 호주), 3위는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 스페인)가 차지했다.

나.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주요성과

(1) 3년 연속 대회 성공개최를 통해 모터스포츠의 대중화 실현

2010년 165,000명, 2011년 160,236명, 2012년 164,152명 등 3년 연속 16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영암 F1경주장을 찾아 모터스포츠 대중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회 저변 확대를 위해 금요일 저가티켓(1~2만원) 신설로 잠재 수요층인 중고·대학생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해외 관람객은 12천명(팀 스태프 등 3천명 포함)으로 추산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 한국 F1대회 전 세계 190여개국 중계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2012년 F1대회는 전세계 190개국에 중개되어 5억명의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요 국가의 2012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시청률은 스페인 51.3%, 이탈리아 48.8%, 독일 44.8%, 영국 38.8%, 프랑스 28.4%로 나타나 해외 미디어 노출효과 2조 8,026억원(유럽 1조 8,956억원) 국가브랜드가치 상승효과 5조 8,28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3) 조직위 주도의 대회 운영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대회운영

국내최초로 조직위원회가 대회 KAVO로부터 프로모터(개최권 보유), 오거나이저(대회운영) 역할을 인계받아 직접 수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원화된 대회운영 시스템 구축 및 대회 운영을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기진행을 총괄하는 경기위원장(COC), 사무국장(SOM), 의료최고책임자(CMO) 등을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하였고 해외

인력에 의존했던 주요 오피셜을 국내인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운영시스템 선진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 해외 오피셜 ('10년) 122명 → ('11년) 61명 → ('12년) 39명

(4) 공중파(케이블) 생중계 및 홍보활동 전개로 F1대회 관심도 제고

MBC와 SBS ESPN에서 예선전(10.13)과 결승전(10.14)을 생중계 했으며, 여수엑스포 종료 이후 집중 홍보기간 선정, 방송 3사 및 언론매체 119개사 활용하여 한국 F1대회 1,066회 노출과 300여명(해외 170명) 언론인의 열띤 취재 경쟁속에 한국 F1대회 진행상황 및 지역 분위기 중점 보도로 우호적인 여론이 확산되었다.

(5) 'F1+문화이벤트' 를 통한 F1 가치 증대 및 관람객 참여 확산

대회 3일간 나눔콘서트, K-Pop, 싸이 특별공연, 세계 민속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관람객 만족도 배가시키는 등 문화 이벤트로도 성공가능성을 보였으며, 특히 국내외 관람객, 해외미디어 관계자 등 열띤 관람과 호응, 그리고, 경찰, 소방 등 사전 종합안전시스템 가동으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대중문화 정착가능성을 엿보였다.

다.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제적 파급효과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됨으로써 관람객 소비지출 315억원, 팀관계자 지출 74억원 등 389억원의 직접소비지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266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933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94억원, 해외미디어 노출효과 2조 8,026억원,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효과 5조 8,289억원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KDI) 파급효과 분석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F1대회지원담당관 강효석, 운영기획담당 고병수, 담당자 임만규

4-4. 경주장 사후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

가. 효율적인 경주장 상시 운영 시스템 구축

2012년 우리도는 F1경주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KAVO로부터 F1경주장을 인수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 정비를 통해 상시 운영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이를 위해, '12. 2. 27.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주장 운영의 근거가 되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는 총칙, 경주장 사용, 경주장 관리·운영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보칙, 부칙 등 총 5장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경주장 위치, 기능, 시설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경주장 사용」에서는 경주장 사용료를 명시하였다. 제3장 「경주장 관리·운영의 위·수탁」에서는 경주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에서는, 경주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조례 제정에 이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2. 3. 20.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시행 규칙에는 경주장 사용 및 허가 절차, 사용 시간, 사용료 납부 방법, 경주장 위수탁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정, 특별회계 설치 등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과 경주장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서식과 관리 대장 양식 등을 규정하여 경주장 운영에 대한 법적 정비를 마쳤다.

이러한 법적 정비와 더불어 경주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조직에게 위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우리도는 F1경주장이 공공체육시설로서 신 성장 산업인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과 저변

확대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인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 후 효율적인 시설물 사후 활용을 통해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립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충족하기 위해, 경주장 운영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 KAVO의 경주장 운영팀을 흡수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수익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전남개발공사를 F1경주장 관리·운영 위탁 업체로 선정하고 '12. 3.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수탁 계약에 의해 전남개발공사는 F1경주장 운영을 위한 전문 조직인 KIC사업단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경주장 운영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KIC 사업단은 총 16명(단장1, 지원팀 6, 운영팀9)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및 다양한 기업·동호회 행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경주장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경주장이 안정적으로 상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나. 2012년 F1경주장 활용 현황

우리도는 F1대회 개최를 계기로 형성된 모터스포츠의 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이를 문화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F1경주장을 모터스포츠의 메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경주장 사용 가능일 약 230일의 98%인 227일을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파급력있는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 적극 유치개최

2012년에는 F1대회 외에도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후원 : CJ 그룹),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후원 : 현대차그룹), 한국 DDGT 챔피언십(후원 :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후원: 넥센타이어), KMF 코리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후원: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등 국내 유수의 사

륜차 및 이륜차 대회를 F1경주장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함으로써, F1경주장이 명실상부한 국내 스피드 수도이자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확고한 자리매김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영암 F1경주장에서는 F1대회 기간(준비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총 78일 간 26전의 모터스포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2012년 총 29전의 모터스포츠대회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터스포츠대회가 F1경주장에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12년 영암 F1경주장 국내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현황 〉

개최일	대 회 명	개최일	대 회 명
3. 11.	한국 DDGT 챔피언십 개막전	7. 8.	한국 DDGT 챔피언십 4전
3. 18.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개막전	7. 15.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3전
4. 1.	KMF 코리아 로드레이스 개막전	7. 22.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4전
4. 22.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2전	8. 12.	KMF 코리아 로드레이스 3전
4. 29.	한국 DDGT 챔피언십 2전	8. 26.	한국 DDGT 챔피언십 5전
5. 5.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개막전	9. 9.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5전
~5. 6.		9. 22.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4전
5. 19.~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개막전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2전 통합전	9. 23.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5전
5. 20.		10. 12. ~10. 14.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7전 (2012 F1대회 서포트레이스)
5. 27.	한국 DDGT 챔피언십 3전	10.27.~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6전 한국 DDGT 챔피언십 6전 통합전
6. 3.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3전	10.28.	
6. 10.	KMF 코리아 로드레이스 2전	11. 4.	KMF 코리아 로드레이스 4전
6. 17.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2전		
6. 24.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3전		

(2) 자동차 관련 기업 신기술 테스트 주행 및 기업 행사 프로그램 유치

영암 F1경주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경주장으로, 2010년부터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F1대회를 개최하면서 영암 F1경주장이 가지게 된 스피드, 열정, 도전, 창조의 경주장 이

미지와 브랜드를 자사의 이미지화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이 추진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F1 경주장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주장 상시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의 경우 현대기아 자동차연구소(35일), 르노 삼성(2일), 한국타이어(3일) 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F1경주장에서 테스트함으로써 경주장 활용도 제고 및 모터스포츠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입 자동차나 타이어 기업들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추진한 드라이빙 스쿨이나 트랙 체험 프로그램을 F1경주장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하여, 미셸린타이어(12일), 아우디(6일), 재규어(3일), 렉서스(2일)의 기업 행사가 F1경주장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TV 프로그램인 탐기어 촬영(9일), 출발드림팀 촬영(3일), 현대자동차 신차 홍보 촬영(1일), 영화진흥공단의 영화 촬영(1일) 등이 진행되어 2012년에는 총 89일간 40건의 기업 행사가 F1경주장에서 개최되었다.

(3) 동호인 및 일반인 스포츠 주행의 활성화

우리도는 모터스포츠 분야의 산업화와 장기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호인과 일반인이 모터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터스포츠의 대중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2012년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내 모터스포츠의 봄을 통해 서한, 인디고 레이싱, 록키 등 모터스포츠 팀과 모닝동호회 등이 경주장에서 트랙 주행을 하였으며, KIC 사업단이 직접 일반인과 동호인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한 스포츠 주행도 매회 약 100여대의 참가자가 몰려 국내 모터스포츠 봄 조성에 기여하였다. 2012년 총 41회 56일간 동호인 및 일반인 주행이 진행되었으며, 트랙 주행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F1경주장 라이선스를 취득한 인원이 총 1,218명에 이르러 국내 모터스포츠가 발아기를 거쳐 성장기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4) 도 주관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우리도는 전국 최초로 도 주관의 종합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도지사컵 모터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다.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F1경주장에 펼쳐진 「전남도지사컵 모터스포츠대회」는 “F1경주장으로 소풍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2012년 국내 모터스포츠대회를 정리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자동차 축제를 표방하였다. 대회 양일간 총 2만명의 관람객이 경주장을 방문하였으며, 모터스포츠 외에 버스 서킷 투어, 택시타임, F1 모형 자동차 제작 대회인 F1 인스쿨, 자동차를 소재로 한 사생대회와 디지털 사진 콘테스트, RC 카 체험행사, 슈퍼카 전시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여 모터스포츠인 이외의 일반인도 경주장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과 함께 하는 모터스포츠 축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5) F1경주장 홍보·운영 인력 지원 체계 구축

F1경주장의 장기적·안정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인력풀을 확보해 경주장을 홍보하고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 및 스포츠 주행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총 500명의 F1경주장 홍보위원단을 구성하였으며, 모터스포츠에 참여하고자 하는 60명의 관내 대학 및 일반인을 F1경주장 경기 진행 서포터즈로 위촉하였다. 향후 F1경주장 홍보위원단과 경기 진행 서포터즈가 지역의 모터스포츠 붐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F1대회지원담당관 강호석, 경주장운영담당 박용학, 담당자 이석호, 최동훈, 김상수

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모터스포츠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레저행태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것이며, 특히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F1 경주대회를 통해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의 성능 향상 및 이미지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도를 미래 신 성장산업인 모터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 부품의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F1서킷 인근 66,000㎡ 부지에 F1서킷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에 고성능·고효율화 및 신소재 등을 적용하고 중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리미엄급 고급 브랜드부품에 대한 연구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7년 12월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 9월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 결과 국내 튜닝산업에 대한 법적규제와 음성화,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행의 불확실성 및 R&D과제와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사유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10월 9일 F1지원법 제정과 같은 해 12월 15일 호남 광역권 전략산업에 동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문가의 기획연구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재 기획하고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11년 10월 28일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대분야 5개 R&D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센터는 국제 공인 F1 서킷과 연계하여 자동차부품의 극한 성능 시험/평가 시설로 활용,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해외 시험 비용을 절약하고 국내 시험/평가 기술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시장(프리미엄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시장) 개척을 위해 품질 인증을 위한 시험 평가 기반 시설로서 프리미엄 부품산업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 구축된 F1 서킷을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의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고, 고품질/고성능 자동차부품의 Test-bed로 활용하여 프리미엄 부품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며, 전량 해외에서 수행되는 국제 자동차부품업체 개발 프리미엄 부품의 시험평가를 국내의 서킷에서 진행하여 비용 부담과 시간을 절약하는 국가 기술력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부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기업유치 등 국부를 증대시키는 과정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도시과 과 장 임채영,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김범상